함께가는 여성

2009. 1·2 www.womenlink.or.kr

189호

특집 2009년 제22차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
민우역사기행 '회식문화를 바꾸자'
쟁점과 현안 막장사업, 경인운하

세상의 색깔들이 다채롭다는 것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양하다는 것
그 사실이 만들어내는 풍요로운 가능성

서로 다른 것들이 각자의 존엄성을 지키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

2009년 민우회로
1,000명의 회원이 오는 꿈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우리 곁으로 앞당기고자 합니다.

www.womenlink.or.kr

함께가는 여성

2009. 1·2

02	민우ing	참을 수 없는 '최저임금개악안'의 꼼수
		언론악법은 또 다른 유신(維新)의 그림자
		통계로 보는 2008년 성폭력 상담소
		2008고용평등상담경향을 통해 본
		경제위기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16	민우칼럼 창	나눔은 '가치의 소통'이다
18	민우스케치	
19	민우역사기행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실천 캠페인 '회식문화를 바꾸자'
22	특집	**2009년 정기총회**
		– 2009년 정기총회 스케치
		– 2009년 민우회 활동방향
		– 2009년 성산동에서 시작하는 민우회, 무엇으로 희망차게 살아갈지 궁금하죠?
30	시민공간 〈나루〉	성미산 자락의 시민공간 〈나루〉를 소개합니다!!
31	쟁점과 현안	막장사업, 경인운하
34	마포나루에서	민우회와 함께해서 행복했던 시간들
36	문화산책	연극 '발자국 안에서'를 보고 – 발자국 안에서 맴돌다
38	회원이야기	우리가 사는 이유
40	생협이야기	경제위기와 판도라의 상자
42	지부이야기	광주여성민우회 – 그녀들의 역사이야기
44	모람풍경	민우회 OHP(Open House Party)를 다녀와서
46	지부소식	
48	독자마당	

발행처 한국여성민우회 **발행인** 권미혁, 김인숙 **편집인** 정은숙, 박봉정숙 **발행일** 2009년 2월 11일 통권 189호
편집위원 김인숙 노재윤 서민자 이인화 임현지 **디자인** 함인선(일탈기획 02-2275-8447)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전화** 02-737-5763 **전송** 02-736-5766 **이메일** minwoo@womenlink.or.kr

참을 수 없는 '최저임금개악안'의 꼼수

나우

최저임금 836,000원[1]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어떻게 생활할까?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가서, 일한 후 점심을 먹는다. 월세를 내고(아니면 대출이자를 갚거나), 4대보험료를 내고(사보험은 비싸서 못 든다), 전기세, 가스비, 전화비 등을 내고 나면 벌써 절반이 넘는다. 남은 돈으로 쌀을 사고, 반찬거리를 사고(과일은 비싸니까 패쓰. 고기는 어불성설), 부양할 가족까지…. 게다가 부조금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는다. 큰 병은 돈 없어 걸릴 수도 없고, 저축은 커녕 대출만 늘어간다.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외에 다른 소비를 상상하기 힘든 돈, 그게 최저임금이다.[2]

1) 주 40시간 기준(2009년 현재 시간급 4,000원)

2) [번외편] 그럼 최저임금개악안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은 80만원으로 무얼 할까? (아 이런 걸 정말 실태조사해야 되는 건데. 노동부장관이랑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이랑 심층면접 좀 했으면 좋겠네) 옷 한벌? 신발 한켤레? 아이들의 1개 과목정도 과외비? 아니, 80만원 가지곤 그 중 하나에도 턱없이 모자랄지 모르겠다.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자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치솟는 물가와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핵심에 최저임금이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극단적인 저임금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에 절반은 되어야 한다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이다.[3] 그런데 최저임금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최저임금을 줄이는 최저임금개정안(이하 '개악안')을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노동부가 적극 밀고 있다. 이 황망한 개악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수습기간 6개월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숙식비도 최저임금에서 빼버리고,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의결기한이 마감되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최저임금노동자 중 고령자, 수습, 지역, 숙식을 제공받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내려가라 등 떠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개악안이 갖고 있는 꼼수

개악안은 참 여러 가지의 꼼수를 숨기고 있다.

첫 번째는, '수습노동자의 경우 6개월까지 최저임금 감액'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현재 수습노동자는 단지 '수습'이라는 이유로 해고예고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 적용하는 방식이 수습노동자에게 보다 노골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것은, 수습노동자의 노동권을 장시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처럼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으로 6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로 남용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는데, 최저임금이 높아서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기업이 이걸 모를 리도, 활용하지 않을 리도 없다. 기업으로선 마음대로 해고가능하고, 임금마저 최저임금미만으로 줄 수 있는 6개월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유혹만 더 강해지는 셈이다.

두 번째는, 60세이상 고령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감액이다. 이를 두고 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고령노동자가 많다는 걸 이유로 든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시켜보겠다는 건데, 일자리가 확대되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건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고령의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것임을 정녕 모르는 것일까?[4] 결국엔 고령자의 노동력을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으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만 남은 것이니 또 기업만 좋은 일인 셈이다.

3) OECD에 따르면 저임금(low pay)을 상용직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의하고, 빈곤선(very low pay)을 2분의 1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4) 모르면 이참에 알기 바란다. '근로빈곤'이라고 검색하면 주루룩 나온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 백과사전에도 등재돼 있다는 사실.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시켜보겠다는 건데,
일자리가 확대되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건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고령의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것임을 정녕 모르는 것일까?
결국엔 고령자의 노동력을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으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만 남은 것이니
또 기업만 좋은 일인 셈이다.

더욱이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참 아무나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상상력의 발로다. '숙식을 제공받는 노동자는 먹고 자는 것조차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최약자층'임을 안다면,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한다는 방식의 개악안은 감히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기 힘든 노동부의 감언이설이 있는데, 최저임금감액을 해당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5]' 할 수 있도록 할 거라는 말이다. 시나리오는 뻔하다. 회사는 면접시 이렇게 말할 테지. "최저임금 감액을 '희망'하나요?", "아니요… 최저임금마저 줄이면 살수가 없…", "당신은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상이 아니군요". 아, 너무 자명하지 않은가. 어떤 노동자도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희망하지 않는다. 최저임금감액은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기업의 희망이다. 새해 벽두부터 '희망'이란 단어가 모욕스럽다.

게다가 최저임금 의결기한이 마감되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는데, 공익위원은 전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는 건 최저임금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결정한다는 뜻 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또한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는 등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서든 낮춰보려는 가지각색의 놀라운 상상력이 개악안에 넘쳐난다. 이런 풍부한 상상력을 제발 이런데 쓰지 말고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창출에 쏟아 부었으면 좋겠다.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최소의 소비만 하는 계층에게 이를 더 줄이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를 포기하라는 말이고, 그것은 곧 인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부디 인권을 포기하게 하는 최저임금개악안이 철회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란다.

나우 ●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의 말이다.
돈이 미덕이 된 이 추악한 사회에 가난은 자존감의 추락일 뿐이다.

5) 이건 법적으로 노동자의 '동의' 형식으로 구현되는데, 노동자가 '동의'만 해주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들이 노동법안엔 참 많다. 그러나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한 노동자의 '동의'는 노동자의 진의(眞意)일 수 없다. 동의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동의가 과연 동의인가?

언론악법은 또 다른 유신(維新)의 그림자

강혜란

2월 MB악법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 거대여당의 기세가 녹녹치 않다. 이를 위해 법안의 쟁점보다는 경제 효과만을 부풀린 한나라당의 홍보전이 설 연휴를 뜨겁게 달구었다고 한다. 연말의 좌절이 대화 부족이 아닌 홍보 부족이라고 판단한 여당은 여전히 '쌍방'이 아닌 '일방'적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해보려는 모양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예산전쟁'에 이어 '법률전쟁'을 선포한 제·개정 법안을 묶어 소위 'MB악법'이라 부르고 있다. 이유는 공공부문을 파탄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과거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반민생·반민주적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MB악법'의 핵심에 금산 분리 완화와 언론악법이 존재한다. 이들은 공히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제의 완화는 서민과 중산층의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

방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악법[1]의 궁극적 목표지점은 신문과 방송 등 주류 언론의 흐름을 보수화하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통제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보수 신문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방송법', '신문법', 기타 특별법 등에 구애 없이 대거 완화하며, 포털 사이트 규제 강화나 사이버 모욕제 신설 등을 통해 온라인상의 정치적 표현을 압박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결국 입맛에 맞는 언론과 국민을 줄 세우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송뉴스 소유해야 거대 미디어 그룹을 창출한다는 궤변

가장 위협적인 내용은 모든 대기업이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본권력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얹어주는 신자유주의 형 몰아주기의 완결판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모든 대기업이 보도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지상파방송채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준다. 이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특별법 시행령이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인 '10조 미만 대기업'이라는 단서조차 없는 전면적 완화의 내용이다.

특히 지상파방송에 대해서까지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 내용은 충격적인 수준이다. 희소한 전파자원을 바탕으로 공익적 서비스를 기본적 책무로 부여받는 지상파방송을 대기업에게 개방한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벌이 각종 특혜 의혹에 시달리고 번번이 문제의 초점이 되는 한국사회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뉴스', '현대뉴스'가 가능하다. 참으로 대담한 시

1) 언론악법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법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정보통신망법),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DTV특별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특별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전파법 등을 말함.

도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파격적 진입 규제 완화의 근거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거대 미디어그룹의 창출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 등을 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명분이 대부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그간 대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적용된 영역이 오로지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즉, 보도 기능이 없는 모든 방송사에 대한 진입은 개방되어 있었다. 영화, 오락, 스포츠, 홈쇼핑 채널과 지상파방송의 40%에 달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 바 없다. 그런데 이러한 대기업이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사에 참여하게 되면 새로운 자본투자가 일어나고 거대 미디어기업이 창출될 것이라고 하니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본투자가, 거대 미디어 기업의 창출이 왜 방송뉴스를 필수조건으로 하는가?

신문 방송 겸영 허용하려면 여론독과점 제어장치 우선해야

'신문 방송 겸영' 역시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에 대한 신문 참여 허용 여부가 핵심 이슈다. 그 외 영역은 이미 참여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신문', '방송', '통신' 등 기존의 매체들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적 현실에 있다.

우리 신문시장은 '조선', '중앙', '동아'라는 보수신문이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들의 정파적 보도로 인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수신문이 자유롭게 방송뉴스 제작에 참여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때문에 적어도 여론 독과점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어장치를 논의한 후, 매체 간 칸막이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예측컨대, 그것은 신문방송 겸영이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대기업 규제 완화와 함께 MBC, KBS2의 민영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즉, 한나라당이 대선 때 줄곧 주장해온 두 방송사의 민영화를 위한 1단계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즉, 대기업과 보수신문의 진입 규제를 완화한 후 해당 방송사의 민영화를 시도함으로써 대기업과 보수신문이 KBS2와 MBC의 미래가 되는 전략이다.

최근 여론에 밀린 한나라당이 '민영화 의도 없음'을 재차 천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려를 접기에는 아직 이르다. 공영방송법을 통한 또 다른 MBC 압박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제3의 카드는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 후 지상파멀티모드서비스(MMS, Multi Mode Service)를 통해 확보되는 여유 주파수를 회수하여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어쨌든, 그들의 목표는 지상파방송을 대기업과 신문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당에 불리한 목소리를 내는 기존 지상파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보수적 여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여론 독과점 제어 장치의 선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사이버모욕제의 신설은 막걸리 국가보안법의 부활

지상파방송과는 다른 차원에서 여당에 위협적인 공간이 있다. 이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번번이 한나라당을 위협하는 존재였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나날이 진화해감에 따라 위로부터의 통치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한 공간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과 공론장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각종 규제를 명문화하려고 한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와 사이버 모욕제의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지상파방송 '길들이기', '주인 바꾸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여당에 불리한 목소리를 내는 온라인 공간의 통제를 목표로 한다.

많은 이들은 사이버 모욕제의 신설을 막걸리 국가보안법의 부활에 비유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술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이 되었던 역사가 온라인을 통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시킨다는 데 있다.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하여 일반 모욕죄보다도 훨씬 높은 형량을 부여하고 있다. 또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처벌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들을 언제든 범죄자로 몰 수 있는 합법적 통치의 현실화다.

이는 암울한 경제 전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던 미네르바는 괘씸죄의 대상이 되고, 부질없는 투자 환상을 부추겼던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은 아무런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언론악법은 여론 통제의 수단, 반드시 막아내야

이처럼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은 '언론악법'이라는 오명이 무색하지 않은 완벽한 여론 통제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삼성 'X파일 사건'을 기억해보자. 당시 삼성은 자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기사를 게재한 경향과 한겨레에 대해 공개적으로 광고를 중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광고를 통한 보도 통제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그런데 이제 직접 뉴스를 만들게 하자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기사 선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 불을 보듯 환한 일이 아닌가?

'조선', '중앙', '동아'는 또 어떠한가? 언젠가부터 하나의 목소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자사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보수언론이 연말 국회의 쟁점을 외면한 채 폭력적 국회만을 부각시켰으며, '촛불'과 '역사 교과서 논쟁'을 왜곡했다. 만약 이러한 보수 언론이 지상파방송마저 주도하게 된다면 이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의 사실만을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속성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이 특정한 그림만을, 특정한 사실만을 주목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재차 여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다.

곧 2월이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공론장에 내놓기조차 두려운 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아니 아예 2월 통과가 목표라고 한다. 그만큼 수적 우세를 자신하기 때문이다. 그 법안의 내용에 경제 민주화, 여론 다양성, 표현의 자유, 미디어 공공성을 위협하는 독소적 조항들이 가득한 데도 말이다.

다행인 것은 해가 길어지고 볕이 따뜻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손을 맞잡았다는 것이다. 막아내야 하고 막아낼 수 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암

강혜란 ● 원고마감, 회의시간을 맞추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치(時癡), 남들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놀이라고 생각하는 독특한 취향으로 원성 자자함. 특히 신기술과 함께 하는 놀이와 탐색을 매우 좋아함.

통계로 보는 2008년 성폭력 상담소

너굴

성폭력 상담소라고 하면 상담만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몸/성 워크샵, 성폭력 예방교육, 가해자교육, 정책모니터링 등 섹슈얼리티 구성과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들까지.

상담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성폭력을 둘러싼 주변 역동을 살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에 섹슈얼리티 논의에 대한 다양한 영감을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2009년 성폭력상담소 반(反)성폭력 활동의 근거와 판단이 되는 2008년 상담은 어떤 경향을 보일까. 통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속피해에 주목

〈표1〉의 성폭력피해 유형별 건수는 성추행 381, 강간 334, 스토킹 47, 통신매체 44, 성문제 59, 기타 13건으로 2008년 상담건수의 총계는 878건이다. 전체 상담 중 강간과 성추행이 81.43%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통신매체나 스토킹의 지속피해 비율이 각 72.73%, 97.87%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인 피해 상황으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통신매체와 스토킹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하여 지속피해로 이어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피해자의 노력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성폭력 가해의 양상도 다양화 되고 있는데 현실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표2〉를 보면 통신매체와 스토킹 뿐 만 아니라 강간과 성추행도 지속피해가 29.9%, 33.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속피

〈표1〉 2008년 성폭력피해유형

단위 : 건(%)

유형	강간	성추행	통신매체[1]	스토킹	성문제	기타	계
계	334 (38.04)	381 (43.39)	44 (5.01)	47 (5.35)	59 (6.72)	13 (1.48)	878 (100)

1) 통신매체 통신매체는 전화와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흔히 '음란전화'로 불리는 범죄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에 노출된 피해자의 경우 상황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과 무기력감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 사건 해결의 의지를 상실하기도 한다. 때문에 피해상황이 중단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건해결의 관건이 되기도 한다.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황을 재해석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성경험 폭로가 가해자의 주요 협박 무기

〈표2〉에서의 지속피해는 1회와 2-3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분류하는 것이기에 너무나 다양한 피해사례를 담고 있다. 3회를 넘는 피해부터 몇 십 년에 걸친 피해까지. 때문에 개별 사건이 가지고 있는 맥락과 상황이 달라 섣부르게 일반화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속피해의 비율이 높은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이'일 경우가 많다는 것과 연동된다. 강간과 추행, 통신매체, 스토킹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살펴보았더니 (〈표3〉) 이성친구 123(15.26%), 모르는 사람 110(13.65%), 직장 상사 · 동료가 100(12.41%)건 순이다. 여기서 이성친구는 애인관계뿐 아니라 다른 성의 동년배 친구를 포함하고 있고 기타에는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난사람, 술집에서 합석으로 만난 사람 등 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관계, 모르는 사람은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서 모르는 사람 13.65%와 불명 4.09%를 합한 17.74%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아는 사이'인 것이다.

〈표2〉2008년 성폭력 피해횟수

단위 : 건(%)

피해횟수	강간	성추행	통신매체	스토킹	계
미상	31(9.28)	31(8.14)	2(4.55)	1(2.13)	65(8.06)
1회	140(41.92)	157(41.21)	7(15.91)	0(0)	304(37.72)
2~3회	61(18.26)	66(17.32)	2(4.55)	0(0)	129(16.00)
지속피해	100(29.94)	127(33.33)	32(72.73)	46(97.87)	305(37.84)
기타	2(0.60)	0(0)	1(2.27)	0(0)	3(0.37)
소계	334(100)	381(100)	44(100)	47(100)	806(100)

〈표3〉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단위 : 건(%)

피해횟수	강간	성추행	통신매체	스토킹	계
이성친구	60(17.96)	24(6.30)	8(18.18)	31(65.96)	123(15.26)
부	10(2.99)	59(15.49)	0(0.00)	0(0.00)	69(8.56)
형제 · 자매	13(3.89)	22(5.77)	0(0.00)	0(0.00)	35(4.34)
친 · 인척	22(76.59)	22(5.77)	0(0.00)	0(0.00)	44(5.45)
이웃	5(1.50)	14(3.67)	0(0.00)	1(2.13)	20(2.48)
직장 상사 · 동료	29(8.68)	62(16.27)	5(11.36)	4(8.51)	100(12.40)
선후배	20(5.99)	50(13.12)	2(4.55)	0(0.00)	72(8.93)
교사 · 강사	42(12.57)	21(5.51)	0(0.00)	1(2.13)	64(7.94)
성직자	2(0.60)	3(0.79)	0(0.00)	0(0.00)	5(0.62)
모르는 사람	46(13.77)	56(14.70)	6(13.64)	2(4.26)	110(13.65)
불명	25(7.49)	15(3.94)	2(4.55)	1(2.13)	43(5.33)
기타	60(17.96)	33(8.66)	21(47.73)	7(14.89)	121(15.01)
소계	334(100)	381(100)	44(100)	47(100)	806(100)

〈표4〉 피해자 연령

단위 : 건(%)

피해횟수	강간	성추행	통신매체	스토킹	계
미상	31(9.28)	35(9.19)	7(15.91)	11(23.40)	84(10.42)
7세 미만	1(0.30)	45(11.81)	0(0.00)	0(0.00)	46(5.71)
7~13세	10(2.99)	32(8.40)	0(0.00)	0(0.00)	42(5.21)
14~19세	70(20.96)	56(14.70)	1(2.27)	0(0.00)	127(15.76)
20세 이상	222(66.47)	213(55.91)	36(81.82)	36(76.60)	507(62.90)
소계	334(100)	381(100)	44(100)	47(100)	806(100)

지속피해로 이어지는 요인 중에는 가해자의 '협박'도 빠지지 않는다. 스토킹 뿐 아니라 강간, 추행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관계는 더욱 고착되는데, 그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로 '여성의 성 경험' 폭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협박에 대항하지 못하고 폭력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여성의 성이 사회에서 얼마나 터부시 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성에 대한 이중규범을 바꾸기 위한 활동이 필요함과 동시에, 개별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논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피해자들의 의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경험을 피해자 스스로 재해석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낮은 연령 피해자에 대한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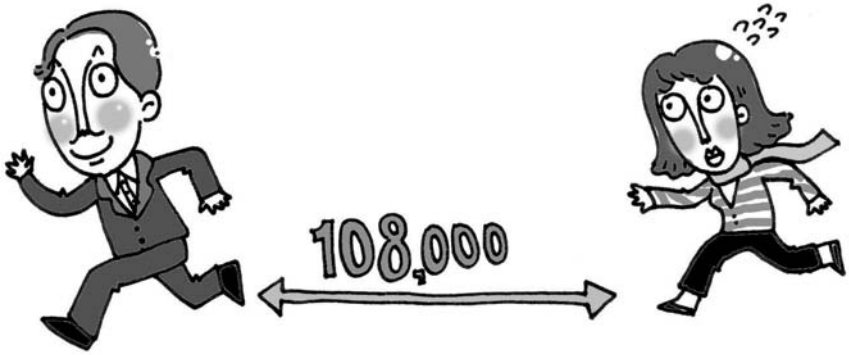
피해자 연령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표4〉를 보면 강간과 성추행 모두 20대 이상 피해자가 50%를 넘는다. 그에 비해 7세 미만 피해는 5.71%, 7~13세는 5.21%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아동피해(13세 미만)의 경우 피해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주변에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아동의 말을 단순한 거짓말로 치부하여 사소하게 여기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 아동의 피해는 드러나지 못한 부분이 많다.

13세 미만의 상담은 전적으로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한 문의나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상담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보호자들이 할 수 있는 대처법에 대해 주로 상담하게 된다. 부모님들의 경우 아동의 성폭력 경험이 평생의 후유증으로 남을 것을 걱정하며, 무언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 지 노심초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은 언제나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반복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차단하는 것, 사건으로 인한 자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 성인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아동의 언어를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동 성폭력 피해에 대처하는 가장 단순하지만 어려운 과제임을 상담을 통해 매 순간 확인한다.

※간단하게나마 상담통계와 분석을 [함께가는 여성]에 싣기 위해 글을 요약하여 싣게 되었다. 자세한 통계와 분석은 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womenlink. or.kr)에서 확인하시길.

너굴 ● 설렁설렁...탕굴탕굴....

2008고용평등상담경향을 통해 본 경제위기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싱기루

나는 고2 겨울 방학이 참 힘들었다. 다가올 '고3'에 작아졌고, 지나간 '고1'은 적응만으로도 남긴 것이 많았다. 2008년은 고2가 그렇듯 다가올 위기와 지나간 고통이 아직도 세력 있는 시기이다. 예측 가능하나 동시에 불확실성이 지배할 미래에 대해 우리는 어떤 답을 상상을 해야 할까?

2008년 고용평등상담실은 비정규직 법 시행 2년차, 경제위기 본격화 직전의 시간을 함께 살고 있다. 지난 한해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은 총 413건이다.[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상담은 90건으로 전체의 21.8%를 차지한다.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위기담론이 확산된 하반기에는 임신, 출산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위협이 노골화됐다. 특히 12월에는 증가폭이 확연했으며, 1월 현재도 지속적인 임신, 출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의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1) 이중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178건으로 전체(413건)의 43.1%를 차지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같은 결과에 대해 매해 다른 분석을 내놓기도 힘든 내심에서 한정된 지면에나마 결과를 전하고자 각주에 본문에 준하는 글을 쓴다.) 올해 직장내 성희롱 상담의 특징이라면, 유독 '노래방'에서 발생한 성희롱이 많았다는 점이다. 회식자리 성희롱은 발생공간별로 본 성희롱 상담중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전체의 36.5%(65건)를 차지한다. 회식자리 성희롱 중 노래방에서 발생한 경우는 무려 69.2%(45건)로 '노래방' 공간에 대한 뚜렷한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회식문화가 곧 음주문화인 남성들의 공간인식이 반영되어 특정 장소에 대한 인식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로 소통이 왜곡되고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

〈사례1〉 *2007년 6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2번째 고용계약서는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번째 고용계약서는 11월 1일부터 2008년 1월 11일까지… 4번째 고용계약서는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하더군요. 계약기간은 2008년 1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3월 1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다 채우고 나니 회사측에서 다시 고용계약을 제시했습니다. 6월 11일까지로… 그런데 6월 11일까지의 계약기간을 끝으로 재계약이 더이상 안 된다는 통보를 퇴직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발생되기 때문이랍니다. (200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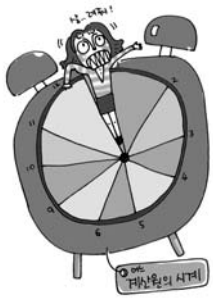
기간제 남용을 통한 자유로운 계약해지, 정규직 전환된 이후에도 '반쪽 자리 정규직'으로서 차별 문제가 예년 상담경향과 흐름을 같이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보호는커녕 '기간'은 사업주의 편의대로 마음껏 갱신과 해지를 할 수 있는 단위라는 점이 사례에서 확인됐다.

파견 노동자들은 시간제, 기간제 고용형태를 겸하고 있고 열악하고 점점 더 나빠지는 노동조건 속에 '어디 말할 데도 없는' 상황을 경험했다. 책임과 임금은 최소화하고 필요한 노동력은 취하는 사용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불평등한 사회체제 내에서 좀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주류의 주장에 의해 진실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우리가 '위기'에 대해 학습한 적이 있다면 바로 '97년, '98년일 것이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여성'을 지배했나?

'생계책임자는 남성가장이며 남성가장에게는 가족 전체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는 그 어떤 경제적 토대보다도 강하다. 위 사례는 98년 이후 우리가 싸워왔던 생계부양자모델에 대한 해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준다. 남편의 실직과 무능은 이제 주변에서 흔한 얘기다. 여성생계부양자의 보편화, 빈곤 여성층의 확대는 10년 전, 경제위기를 내세워 노골적으로 여성을 정리해고 했던 류의 일들의 명분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준다.

인원감축중심의 구조조정은 조직의 가장 힘없는 계층이 일차적 대상이 된다. 경제위기 담론이 지



〈사례2〉 *55세이다. 작년 11월부터 남편의 실직으로 건물청소 일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10일, 5일 하고 그만두는데도 성의를 가지고 일했다. 지하3층에 휴게실과 비슷한 다다미방이 유일한 휴식공간인데 쉬고 있으면 "여기가 당신들 온돌 방이냐?"고 무안을 주었다. 그리고 한번만 자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가는 거라는 말도 했다. 토요일까지 일하는데 70만원 받는다. 새로 지은 오피스텔 건물 전체를 나보고 다 하라고 한다. 한 달에 이 돈을 받자고 엄청난 일을 하자니 너무 힘들다. (2008.3.18)*

〈사례3〉 *'사내커플이고, 임신했으니까 스스로 사표를 써라, 너는 이제 못 쓴다' 이런 식으로 말 했었다. '너는 일을 못한다, 사내커플인데 신랑한테 피해가 갈꺼다' 라는 식으로 말했다. 지금 우리 회사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걸 빌미로 정리해고를 할 생각인 것 같다. 신랑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업무도 없이,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진 못 할것 같다. (2008.12.8)*

배하는 세상에서 기업은 위선을 벗는다. 일, 가정양립의 높은 기치와 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은 〈사례3〉과 같은 '실례' 로 반박된다.

힘없고 저항이 가장 적은 집단 잔류자들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지난 2008년의 고용평등상담사례는 성차별적 직급별 정년에 따른 정영임님의 2번째 해고 싸움, 수습기간 연장으로 차별받는 청년노동자의 구직경험을 통해 엄연한 고용상의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별 차별의 존재성을 확인했다.

한편, 경제위기 담론은 개별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압력, 위협으로 불안의식, 공포감을 조장하여 대응력을 위축시키고 노동권을 후퇴시킨다. 위기의식과 불안에 질려 노동자간 경쟁이 첨예해지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연대나 자신의 일할 권리 찾기 노력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오직 '고용유지' 만이 단일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년 만에 다시 맞는 경제위기의 성격과 조건은 무엇일까?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이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는 초미의 관심사이자, 예측도 가능하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반면, 여성의 상대적인 고실업과 성별분업을 강화하는 기업의 논리가 팽배한 가운데 역설적으로 전선은 뚜렷해지고 여성운동은 보다 단단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성운동의 내용에 따라 이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경제위기가 지나간 후 여성 비정규직은 일반적이 되었고 간접고용의 다종다양한 확대는 사업주들에게 유용한 상식이 됐다. 세상이 이렇게 뒤바뀌었으니,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는 모든 약한 것들의 존재가 달린 문제가 된다.

인간이 무기력해지는 순간, 전면적인 착취가 가능해진다. 무기력함의 징후는 말이 없어지거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시기이다. 결연한 의지를 벼리고, 다가오는 경제위기시기 오히려 표면으로 드러나는 '남성' 중심의 노동, 노동권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암

싱기루 ● 휴~~~~~웃

〈사례4〉 *그런데 고소를 하면 직장을 잃을 까봐 두렵다. 다시 실업자 되는 것도 싫고 이력서에 경력이라도 넣으려면 참고 다녀야 할 거 같다. (2008.2.15.)*

나눔은 '가치의 소통이다'

윤정숙

여성운동에서 아름다운재단의 활동을 시작한지 꼭 3년이 되었다. 나눔운동은 여성운동과는 다른 문법의 운동방식이지만, 기존의 삶과 사람관계의 질서를 바꾸어간다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같은 음악이지만, 음계와 코드를 바꾸어 다른 음색을 내야하는 피아노 연주곡이라고 할까.

'이웃으로 이웃을 돌보는' 개인과 사회

새로운 나눔운동은 '자선을 넘어 변화'를 꿈꾼다. 자선과 구제의 전통적 나눔운동을 넘어 기부와 수혜, 모금과 배분으로 요약되는 나눔의 전 과정에서 개인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중심에 둔다. 나누면서 개인의 삶이 서서히 변화하며, 이런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보살핌과 돌봄의 가치가 경쟁적 생존이 지배하는 사회를 성찰하게 한다. 이 점에서 나눔운동은 세상을 바꾸는 다른 방식의 운동기획이며, 사람을 움직이는 다른 언어와 실천이다.

성별, 직업, 종교, 인종 등 모든 경계를 떠나 선 자리에서, 자신의 작은 부분을 나누며 '의미있는 삶'을 찾는 사람들, 나눔으로 책임과 연대의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새로운 시민'이다. 생활 안에서 돈, 재능, 전문성 등 무엇이건 나눔을 통해 '이웃으로 이웃을 돌보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고자 한다. 과잉의 시대에 결핍과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구체적 행위인 기부와 나눔은 개개인들에게 특별한 행복과 삶의 이유를 준다. 기부하는 사람들 모두는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기쁘다'고 한다. 나누면서 느끼는 행복함, 그건 나누는 삶이 주는 가장 큰 무형의 가치일 것이다. 나눔이 자신의 삶은 물론,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희망의 씨앗이 된다는 믿음은 그 행복의 원천일 것이다.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오프라 윈프리는 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에 거액의 기부를 하며 '내가 받았던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돌려주고 싶어서'라고, 빌게이츠 부부는 '모든 삶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신념으로, 혹은 '부자로 죽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으로 죽기를' 원해서 기부한다. 결국

'나눔은 지갑을 열기 전에 마음을 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모든 운동은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를 확산' 하는 것,
가치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사람을 조직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일이며,
모금은 가치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물적 자원을 만드는 일이다.

기부를 통한 나눔은 의미있는 삶과 맞닿아 있다.

그렇게 시작하는 나눔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간다. 나눔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바꾸어주면서, 또한 사회적, 공동체적 이슈를 해결하는 자원을 만들어준다. 대안과 새로운 공동체적 삶을 꿈꾸는 풀뿌리단체를 지원하고, 노숙인들에게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며,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의 언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며, 공부와 경쟁 속에서 다른 문화적 체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일을 한다.

보다 많은 개인들이 나눔의 순환을 만들어갈 때 세상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개인'에서 '개인을 생각하는 공동체' 로 나아갈 것이다.

가치를 소통한다는 것

나눔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금이다.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을 모으는 일이다. 모금은 '가치의 사회화' 혹은 '가치의 소통' 이다.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조직이 실현하려는 가치에 공감과 지지의 결과를 보내는 행위가 기부이며, 모금이다. '나눔은 지갑을 열기 전에 마음을 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모든 운동은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를 확산' 하는 것, 가치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사람을 조직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일이며, 모금은 가치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물적 자원을 만드는 일이다.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의 수와 물적 자원의 크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결국 자원의 동원, 모금은 전략과 프로그램이기 이전에 어떤 가치를 어떻게 '소통' 할 것인가이다.

사람들은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에 감동할 때 마음을 열고 기부를 한다. 조직의 가치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하고, 자신이 함께 하면 세상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는 꿈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꺼이 나서며 그 가치를 구현하는 일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결국 모든 운동은 어떠한 가치와 비전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감동하고 공감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닐까. 함

윤정숙 ●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판매 당장 중단하라!

지난 11월 27일부터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할 책임을 지는 대형 유통마트들이 국민 건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상술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27일(목) 용산역 이마트

어우러져 물길을 여는 시민 공간 『나루』개소식~!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꾸준히 활동해온 네 단체(녹색교통운동,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정의)가 희망과 대안을 그리며 계획한지 1년 3개월 만에 시민 공간 『나루』를 만들었습니다. 시민공간 『나루』가 건립되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던 고마운 분들을 모시고 함께 축하하는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인 시민공간 『나루』에서 다양한 운동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넉넉한 물길의 첫 자리였습니다.

2008년 12월 9일, 시민공간 나루 소극장

할 말은 다하는 침묵시위 "MB 미쳤어"

한나라당이 발의한 85개 악법이 처리되는 비극을 막기 위하여 여성단체들이 함께모여 여의도 앞에서 침묵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날의 침묵시위는 1년 내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듣는 정부에 더 이상 말할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자리였습니다. MB정부를 향한 분노의 춤사위, 똥침, 신발짝을 날리며 민우회는 한나라당의 7대 악법에 반대하고, 언론노조의 파업 또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08년 12월 3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

이젠, 밥값도 내 놓으라는 거냐! – 최저임금 개악 반대!! 여성노동자 규탄 기자회견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으로 한달 787,93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9.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서 숙식비용을 공제, 수습노동자 및 65세 이상 노동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본 개정안은 최소한의 생계비도 주지 않으려는 개악안 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우회는 개악안 철회와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3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앞

고마운 그대, 새 집에 발 도장 찍으러 오세요~! OHP(Open House Party)

많은 회원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후원 덕분에 만들어진 민우회의 새로운 공간 「나루」. 다~ 회원분들 덕분입니다. 새롭게 내일을 기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주신 고마운 분들과 새로운 사무실 구경도 하고, 그리운 이와 함께 얼굴도 보며 즐거이 한해를 마무리 하는 민우회원 송년회 +Open House Party(OHP)가 알콩 달콩 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13일, 시민공간 나루 소극장

서울 한 복판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용산참사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민우회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의 많은 단체들의 참여 속에 열렸습니다. 용산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은 정권에 대한 책임을 규탄하는 자리로 **#.용산 철거민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진실을 왜곡하는 모든 증거인멸행위와 왜곡과 음해의 여론전을 중단하라! #.생명경시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서울청장을 구속 수사하라!**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2009년 1월 23일 경복궁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앞에서

이유 있는 실천 선언!
회식이 즐거워집니다!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실천 캠페인

'회식문화를 바꾸자'

이임혜경

월드컵으로 한국이 들썩이던 2002년, 민우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회식문화를 바꾸자' 캠페인은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금주운동이 아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할 (핵심) 문구는 다름 아닌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다. 민우회의 '회식문화를 바꾸자' 캠페인이 선풍적인 인기와 관심을 모았던 당시, 적잖은 언론과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말자, 곱게 마시자는 캠페인으로 오인하여 때론 캠페인의 목적과 의도에 대한 긴 설명을 필요로 하기도 했었다.

그러게. 민우회는 왜 이런 캠페인을 했을까.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다양한 교육에서, 여러 회원들을 만나며 듣게 되는 직장 내의 수많은 성차별의 문제들. 그래서 고민으로, 잡담으로, 수다로 존재하는 직장내 여성 차별의 현실을 좀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나로부터 이를 바꾸는 실천을 시작하는 계기가 있어야 했다. 그리하여 마련한 것이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 캠페인' 이다. 지금이야 문화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배치, 승진, 호봉 등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겪게 되는 법 · 제도적 차별의 문제가 아닌 직장 '문화' 에 대한 접근은 새롭고 반짝반짝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성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직장문화,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들을 꼭 짚어 언어로 표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직장에서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시도하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또한 토론회, 집회, 모니터링이 아닌 '캠페인' 이라는 방법이 민우회 내에서 그리 익숙한 것은 아니었고 무엇보다 '실천' 캠페인의 컨셉과 기획에 대한 부담은 만만치 않았다.

성희롱, 승진, 인사고과 등 성차별적인 직장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름 아닌 '회식자리'였다. 회식자리에서의 주량이나 버티는 시간이 인화력 또는 능력으로 평가되어 비공식적 인사고과로 이어지기도 했고 2차, 3차의 회식자리로 자주 이용되는 단란주점, 룸싸롱 등은 여성의 참여 자체를 매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캠페인은 고용평등상담실로 들어오는 상담내용을 기반으로 몇 가지 주제를 뽑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직장에 다니거나 다녔던 혹은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로 기획단이 꾸려졌다. 일명 '날아라 기획단' . 기획단 뿐만 아니라 민우회 회원들의 능력과 힘은 막강했다. 자신의 경험, 주변 여성들이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이 쏙쏙 모이기 시작했고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거리캠페인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들은 직장문화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성희롱, 승진, 인사고과 등 성차별적인 직장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름 아닌 '회식자리'였다. 회식자리에서의 주량이나 버티는 시간이 인화력 또는 능력으로 평가되어 비공식적 인사고과로 이어지기도 했고 2차, 3차의 회식자리로 자주 이용되는 단란주점, 룸싸롱 등은 여성의 참여 자체를 매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직장내 성희롱이 회식자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은 점차 배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결국 남성들만의 잦은 술자리를 통해 비공식적인 부문에서의 친밀감이 형성되는 등 결국 공식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물론 폭탄주, 술잔 돌리기 등 술 중심으로 진행되어 술을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는 술이 약한 사람들에게 부담과 공포의 자리이기도 하다.

이에 2002년 3월부터 10월에 걸쳐 20회가 가까운 날아라 기획단의 회의, 남성실천단 회의, 웹 싸이트 제작, 설문조사, 개인/직장/시민단체들의 실천선언 받기, 3번의 거리캠페인 등이 진행되었다. 반응은 과히 열광적이었다. '남성 1000인 실천선언'에는 1114명이,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위한 회식문화 바꾸자 캠페인에 20개의 기업, 7개의 단체가 동참하겠다는 선언문에 싸인을 하였다. 40여 곳 이상의 라디오, 신문, 방송 인터뷰와 보도로 이어졌고 남산, 명동, 여의도, 춘천, 원주, 진주에서 열린 거리캠페인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현재 회식문화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점'을 질문한 웹싸이트 설문조사에 총 3076명이 응답을 하였고, 1위는 회식자리에서의 여성직원 끼워 앉히기, 술 따르기, 블루스, 음담패설 등 성희롱, 2위는 일방적인 회식약속(날짜, 장소 등), 3위는 폭탄주, 술잔 돌리기 등 술 강요였다. 이는 거리 캠페인에서의 현장 게시판 결과와도 비슷했다.

평소에 인터뷰나 캠페인, 기사 등에서 민우회가 언급되면 심심찮게 항의전화나 메일을 받게 되는데 '회식문화를 바꾸자' 캠페인은 언론 보도 후 지지한다는 전화나 글을 보게 된 보기 드문 일이 있기도 했다. 거리 캠페인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 특히 남성 실천선언 등 남성들의 참여가 돋보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직장 내 회식문화가 조금이나마 변화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의 회식자리가 괴롭다면, 혹은 당신의 회사에 변함없이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문화가 팽배하다면, 또는 회식자리에서의 정보공유와 인맥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민우회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민우회의 활동에 지지를 보내시길! 민우회가 제안하는 유쾌한 10가지 실천내용을 출력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맘

이임혜경 ● 수많은 영감과 애정을 던져주는 그대들, 항상 고마워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많이많이.

직장인의 유쾌한 10가지 실천

1. 회식날짜와 장소는 모두의 일정과 의견을 고려하여 함께 정한다.
2. 자율적인 회식참여를 보장하고 억지로 술을 권하지도 먹지도 않는다.
3. 술 따르기, 블루스 강요, 끼워 앉히기 등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4. 음담패설은 하지도, 재밌는 척 듣지도 않는다.
5. 고기굽기, 수저놓기, 안주찢기 등 회식자리 도움일은 모두가 함께 한다.
6.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단란주점, 룸살롱 등 퇴폐향락업소에 가지 않는다.
7. 회식자리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문제제기하는 동료의 든든한 지지자가 된다.
8.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저해하는 잦은 장시간의 회식을 삼간다.
9. '여자니까', '남자니까', '니가 어리니까', '밥하러 안 가?' 등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
10. 평등한 관계에서 소통하며 팀웍을 다지는 회식문화를 만들어간다.

상사의 5가지 실천

1. 회식약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2. 단란주점이나 룸싸롱을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네, 아직도 그런 데 가나?'라고 한마디 한다.
3. 술 따르기, 끼워 앉히기, 블루스 등을 여직원에게 강요하는 것이 상사를 위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직원들에게 단호하게 원하지 않음을 밝힌다.
4. 회식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로 직원들을 판단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5. 회식참여를 강요하거나 술로 충성도를 확인하지 않는다.

2009년 정기총회 스케치

달리 ●

민우회원 여러분, 날씨는 춥고, 그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자니 답답하고 따분하시다구요? 세월이 지날수록 얇아져만 가는 인간관계와 지갑 때문에 우울하시다구요? 여기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환영해드리는 민우회총회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날카롭게 벼려진 신경줄을 탁하고 놓아버리게 만드는 총회장 입구에서부터의 편안한 미소와 격려서비스~ 맛있는 떡과 음료로 엔도르핀을 촉진시켜드리는 달달 간식 서비스~ 2008년 숨가쁜 일년 사업과 평가를 하품나올새도 없이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신개념 요약서비스~ 올해는 안 울어야지 마음먹고 봐도 어느새 간지안나게 찔끔거리게 만드는 감동의 활동가 무대까지~ (즐겨보는 개콘 도움상회 버전. 써놓고 보니 아 진짜 안웃겨.ㅠ.ㅠ) 여느해처럼 총회 대의원 하겠다고 선뜻 담당활동가한테 메일보내고 난후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5살 지호, 요녀석을 달고 가야하는데, 아이와 함께 나서는 외출길은 머리속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길을 나서도 워낙 변수가 많은지라. 자고일어나면 밤새 에너지가 오버충전된 지호는 10걸음 정도 걸으면 뒤로 돌아 50걸음 뛰어서 사방팔방 달아나기 때문에, 녀석과 아웅다웅대며 총회장소까지 오니 등이 뜨끈뜨끈할정도로 땀이 난다.

입구에 들어서니 활동가들이 따뜻하게 반겨준다. 소담지고 풍성하게 간식이며 음료며 준비한 정성이 이쁘다. 기꺼이 불편해지기는 여기서도 계속된다는거. 음료는 있으나 종이컵은 없다는거~ 자기컵을 가지고 와야된다는거~

총회때마다 느끼지만, 멀리 원주, 진주, 춘천 회원분들 총회 같이 할 때마다 그 자체가 감동이다. 게으르고 핑계 많아 총회시간 넘겨 도착하는 나를 부끄럽게 한다.

총회 시작 후 김상희 선생님의 축사. 권미혁 선생님이 '좀 짧게~' 라고 부탁하셨는데 조금 길었나? '역시 정치를 하시면~' 이라고 살짝 구박을 받으신다. 축사내용 중 '요즘 새해인사가 각박해졌다. 복 많이 받아라에서 올 한 해 잘 견디자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난다. 대통령을 하도 잘 뽑아놔서 올 한 해도 고달프게 생겼다.

작년 총회 회의록을 이름부터 막 막 싱그러운 싱기루가 재밌게 읽는다. 회원들 지루해할까봐 개그멘트도 넣어가며 열심히 읽어주셨다만, 역시 전차회의록 낭독의 생명은 스피드다. 다음 총회때 부터는 전차회의록 낭독 기록을 두고 가장 근사한 수치를 맞춘 회원에게 상을 주는 이벤트를 하면 재밌겠다라며 쓸데없는 상상을 한다.

똥글이 사무처장이 짝꿍 박뽕이 없어 외롭다고 하소연하며 2008년 한해 사업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 줄줄줄~ 줄줄줄~ 줄줄줄~ 많기도 하다. 외로울새도 없었겠구만. 참 대단들도 하지. 문득 뜨거운 여름내내 시청광장에서 천막지키고 집회했던 활동가들, 회원들이 떠오른다. 본부 사업, 지부사업 평가를 듣다보니 쭉쭉 늘어나는 로봇 팔로 활동가들, 회원들 토닥토닥 등 두드려주고 싶어진다. 욕봤어요. 애썼어요.

서울남부여성민우회지부가 해산된단다. 손장갑 투표할 때 찬성손을 들긴 했지만 아쉬운 마음이다. 내야 머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분들도 없지만, 자주 연락은 안해도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친구가 다른 땅으로 이민 가는 느낌이랄까. 그동안 애썼어요. 욕봤어요. 쭉쭉 또 늘어나라 토닥토닥 로봇팔.

그리고 감사패와 심지상 등 각종 상 증정식. 난 심지상에 약하다. 상은 넘들이 받는데 왜 내가 눈물이 나냐고요. 회원활동하면서 자주 접하는 활동가들의 열정과 노력을 알기 때문이겠지 싶다. 축하와 격려를 심하게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 같으니~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생기 유경희쌤이 대표직을 사임하신 단다. 미리 정보가 없어서 좀 놀라웠다. 마지막 인사는 담담하게 풀어주시더니, 활동가들과 대표선생 두분이 몰래몰래 준비한 (생기를 위한) 쌩쇼를 보시더니 결국 무너지셨다. 계속 눈물 흘리는 선생님을 보며 가만 가만 울었다. 옆에서 지호가 보면 큰소리로 엄마 왜 울어~하며 민망하게 만들게 뻔하기 때문에. 건강하세요. 애쓰셨어요. 평온하고 맑은 얼굴 멋진 하얀머리 기억하고 있을게요.

대략 이러한 감상으로 총회를 함께했다. 무사히 잘 치뤄지게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준비한 모든 이들이 그저 대단하다. 2009년 한 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어 보이게 출발하고 있지만, 서로의 모습에서, 우리 속에서 두근두근 힘찬 희망이 보인다.

달리

나눔이 생활이 되어 있는 그녀!
감동을 덤으로 전해주는 그녀!
유머감각을 키우고 싶은 그녀!

2009년 **민우회 활동방향**

김인숙

2009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논의와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존재이유를 살펴보게 되고 정관 속의 목적을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정관 속에서 민우회는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생태적 사회의 실현을 목적' 으로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그간 2만명의 회원과 선배분들의 노력으로 정관의 목적에서 명시한 한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왔고 그 활동을 통해 우리의 역량도 성장해왔음을 자부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활동의 성과를 후퇴시키고 미래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보수정권의 저의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경제위기로 서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복지예산의 축소, 공공영역의 민영화, 교육의 양극화 등 소수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성평등정책 역시, 정책이 존재하는 가를 의심할 형국으로 성평등과 인권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물론 생태적 가치는 더더욱 찾기 힘들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활동과제와 활동 방식은 어떠해야 할지 다시 물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 2만 회원의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구성하고 우리의 활동을 만들어내며,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할 물적 토대를 만드는 주체가 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실직을 경험하고, 되풀이되는 성차별을 경험하며 언로가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는 사람도 바로 우리 회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느끼고,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서로 나누고 위

로하고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야겠지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한 해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문제에서 여성운동의제를 발굴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논의구조의 구성원이 되고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우리 회원이 중심에 선다면 지난 성과가 뒷걸음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전국에 10개의 지부회원들과 함께 생활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법과 제도를 넘어서 일상에서의 변화를 만드는 쉽지 않은 작업을 우리 2만 회원이 전국에서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 변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운동의 경험을 살려 일상의 변화를 만듦으로서 진정한 성평등과 인권이 살아있는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수정권의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적하고 희망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진행해 온 생활운동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힘을 배가 시킨다면 우리는 이 시기에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업과 활동에 동의하고 동참해야 하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대중을 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거리로, 인터넷으로, 학교로, 사무실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어느 곳이건 적극 나가는 한 해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에 동의하는 회원을 적극 확대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회원과의 소통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시도도 하렵니다. 참 많은 일이, 그렇지만 희망이 느껴지는 일이 우리 앞이 있습니다. 회원님!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2009년을 같이, 재미있게, 힘차게 만드십시다. 암

김인숙 ● 사람과 풍경과 계절과 거리, 주변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해지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2009년 성산동에서 시작하는 민우회, **무엇으로 희망차게 살아갈지 궁금하죠?**

정은숙

2008년 지난 한 해, 새롭게(!!!) 출범한 MB정권은 가진자들을 위한 너무도 티 나는(?) 말도 안 되는 법과 정책들을 마구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난리였던지요. 시장, 기업, 개발과 우찌나 친하게 지내려고 하던지, 그 과정에 우리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으로 두 달여를 거리에서 지내고, 공안정국에 얻어터지고 공공성은 더욱 더 후퇴되고, 여성정책은 아예 사라지고, 경제는 더욱 힘들어져 우리네 삶만 고달퍼졌지요. 그렇게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겪으며 그러나 또 힘차게 그것들을 이겨내며 민우회도 회원님들도 열심히 살아낸 것 같아요. 특히, 민우회는 지난 2년 동안 준비했던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드디어 11월에 성미산 자락에 3개의 시민단체와 새로운 운동의 터전 '나루'를 마련했답니다. 회원님들과 후원자들의 열정이 만들어 낸 놀라운 성과지요. 특히나 경제가 힘든 시기에 십시일반 주머니에서 꺼낸 우리들의 돈으로 터전을 마련한 건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참 잘했어요 ^^! (박수를 각자에게, 서로에게 아낌없이~)

2009년에도 우리는 잘할 수 있겠죠? 아무리 누군가(?) 우리를 용산참사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슬프고 분노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힘이 우리에겐 있으니까요. 자, 희망차게 출발하는 민우회 2009년으로 여행을 다함께 시작해 보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여성주의운동의 기반을 튼실하게 마련해보자' 입니다. 침체되고 힘든 시기일수록 조직의 내실을 튼튼히 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게 소중하다는 사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2009년 회원확대 목표는 4,560명!!! 그중에서 본부 회원확대는 1,000명!!!** 본부 1,000명이라는 말에 '미쳤어~~~' 라는 노래로 그 애절한 맘을 확인해 주시던 회원분도 계셨지만, '역시 민우회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격려가 쏟아졌답니다.(^^;;)

'1,000명이 민우회로 온다' 캠페인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만약 안 온다면 '민우회가 간다' 라는 캠페인으로 거리 곳곳에서, 그리고 '웹2.0세대 여성운동을 접속

하다– 페미블러거캠프'를 통해 인터넷 곳곳에서 민우회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터전을 마련한 마포지역을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엉이(부리부리한 눈으로 엉성한 예산을 감시하는 이들의 모임) 2기모임도 구성하려구요. 재미나게 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확대되어가는 회원들 속에서 여성운동은 확산되어가고 함께하는 운동의 친구들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라 믿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서 우리 회원님들의 주머니를 살짝쿵 털어보는 '2009년 회비인상 해보자' 캠페인과 3가지 색깔의 재정사업 '콘서트, 마술쇼, 여성주의 개그쇼' 등도 생각중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티켓을 골라서 구입할 수 있는 특전이 있겠죠. 뭐, 3가지 티켓을 다 구매하는 더 좋은 방법도 있구요~. 또 하나, 대안무역을 통해 거래하는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기획중이에요. 착한소비, 착한커피 '커피야'(가칭)가 그것인데요, 잘하면 올해 5월쯤 우리의 공간 '나루' 1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한번씩 꼭 들리셔서 맛나는 커피도 드시고 여성운동의 소중한 만남과 공유의 공간으로도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는 성평등교육,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학교성교육,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 미디어관련 교육, 자아성장교육 등 **민우회가 그동안 다양하게 진행해왔던 교육들을 모아모아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민우회 히트상품 '여성주의학교 간다' 등 다양한 대중강좌도 준비되어 있구요, 지역모임, 직장, 학교, 마을, 동호회 등 교육이 필요한 그 어디라도 불러주시면 달려갈 준비도 되어 있답니다. 이런 교육들을 통해 여성주의 운동도 널리널리 확산시켜 갈거구요. 그리고 멋진 강사가 되보겠다는 의지 있는 분들은 망설임 없이 민우회 문을 두드려주세요. 스타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릴게요.

세 번째는 실종된 여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끊임없는 실천활동들을 통해 여성운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에고, 정말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요? 민우회가 숨가쁘게 달려가고자 하는 내용들 일단 천천히 정리해볼게요. **1)먼저 경제위기와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응활동 준비되어 있습니다.** IMF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요즘의 경제위기, 새로운 일자리도 찾기 힘들고 구조조정과 해고의 위협이 늘상 있는 현실은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특히나 여성 경제활동의 70% 정도가 저임금의 비정규직인 현실은 여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지요. '돌아온 경제위기, 여성노동권 탄탄히 다지기'를 통해서 여성의 비정규직화 근로 빈곤화 등에 관련한 대응활동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또 하나, 일상속에서 차별드러내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사회속의 '나이주의'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구요. **2)가난한 '우리'에 대한 보고서 작업을 통해 가난함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대응활동도 펼쳐보겠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영역별로 다양한 개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가난함'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안을 만드는 운동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MB 정부의 여성정책 모니터링 및 성평등 정책 리포트 발간', '장기요양 보험제도 법제도 개선활동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에 대응', '민우회 활동과 관련한 이슈개발 및 확산을 위한 다

양한 연구사업' ,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는 사회개혁과제 관련한 연대활동도 부지런히 할 계획이랍니다. 에휴…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도 이 모든 활동들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하니 힘도 나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마구마구 솟아납니다!!!. 우리는 이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자아자~~~!!!

네 번째로 준비되어진 활동은 지역/부설/기구 활동의 역량강화입니다. 워낙 튼실한 조직들이라 2009년도 활기차게 즐겁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3년간 알차게 운영된 지역민우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서 지부간의 정보공유, **지부활동역량 강화 및 활동 주제별 네트워크- 예산분석네트워크, 교육네트워크, 지역여성정책위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여성주의 상담을 통한 반성폭력 운동 활성화를 기본으로 섹슈얼리티 세미나, 상담원모임, 멋진하루 등 다양한 영역의 회원활동 지원을 통해 반성폭력 운동 확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몸 · 성 워크샵, 동네 성교육, 비혼모 성교육, 가해자 교육 등 섹슈얼리티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도 강화할 예정이구요, 성폭력예방 가정통신문 모니터링, 거리 성교육, 민우상담네트워크 등도 알차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보다 더 악법일 수 없다는 방송법 개정관련 대응활동을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는 **미디어운동본부는 정치적, 기술적 환경변화에 따른 미디어 정책재편을 감시하는 활동, 성인지적 모니터링 및 미디어 감시를 더욱 강화**합니다. 초중고 젠더 감수성확대를 위한 모니터링대회, 이달의 나쁜방송프로그램 선정작업, 시민미디어포럼, 방송광고 사전심의 시스템 및 방송광고 모니터링 사업들을 진행할거구요, 방과후 학교, 학부모 교육 등 미디어 교육영역 확대에도 힘쏟을 예정입니다.

2008년 광우병 정국에서 눈부시게 활약했던 우리의 생활협동조합은 2009년에는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20년 활동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20년의 비전을 선포 하는 등 여성주의적 생태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고 조합원 1,600명 확대 및 매장 3곳 확대하여 힘차게 운영할 예정이랍니다.

이렇게 2009년 민우회 사업들을 쫘~~악 펼쳐봤는데요, 사실 지면이 부족해서 소개되지 못한 활동들이 더 많답니다. 아쉽긴 하지만, 우리들의 2009년 활동이 하나씩 그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겁니다. 기대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다 아시겠지만 20009년 역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명박 정부의 성평등정책과 민주주의, 민생정책은 더욱 후퇴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도 여성운동도 더욱 힘들어질거구요,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 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럴 때 일수록 조금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운동을 알려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힘을내고, 대중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아신다구요??? 넵~그러면 2009년을 함께 그렇게 힘내서 신나게 재미나게 살아보야요~!

정은숙(똥글) ● 예쁘다, 똑똑하다, 따뜻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정신 줄 놓고 웃는 사람, 멋진 계산기, 오색볼펜이 보이면 '나두, 나두' 하면서 달려오는 사람, 항상 무엇이든 함께 나누는 사람.

성미산 자락의

시민공간 〈나루〉를 소개합니다!!

고마웁고~ 또 고맙습니다!!

공감과 다름, 드나듦이 조화로운 〈나루〉, 감동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는 사회, 여럿이 함께하는 평등/평화/나눔을 실천하는 〈나루〉로 태어나겠습니다.~! 이 모두 네 단체의 회원들과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는 후원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F 주차장 & 카페(오픈예정)

1층은 좁지만 넓은 주차장, 민우회 카페(착한 커피 '커피야(가칭)', 2009년 상반기 오픈 예정)도 있어요.

2F 환경정의

지구 생태계와 한반도가 처한 환경위기가 성장중심의 문명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국토난개발 대응, 생명의 물 살리기 운동, BLUE SKY 운동,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 환경책 큰잔치 등 대안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F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여성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생명과 여성의 관점에서 환경과 건강을 작게, 적게, 천천히 대안적 생활양식을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을 만들어 갑니다.

4F 녹색교통

사람을 존중하는 교통,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친환경 교통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조사 연구로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과 토론으로 제도와 시설환경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교통사고 부모를 잃은 교통사고 유자녀와 유가족을 지원합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운동, 대중교통 개선, 교통안전과 교통문화의 개선활동,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과 환경파괴의 저감 등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5F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창조적인 실험 정신과 혁신적인 생각,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함께 느리지만 즐겁게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산감시운동, 좋은기업만들기 운동, 정보인권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무엇보다 한결 같이 시민사회 운동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는 회원과 후원자 여러분이 있어 더욱 든든한 힘이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민공간〈나루〉에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막장사업, 경인운하

권범철

경인운하사업예정지인 굴포천방수로 공사현장@환경정의

다시 운하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운하를 이야기하는지 그 뻔뻔함에 박수라도 보내야할 판이다. 이제 우리는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맘 편하게 믿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곧 착수할 모양새를 갖출 경인운하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경인운하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흘러드는 인공물길로서, 길이18㎞(방수로 포함), 폭80m짜리의 대수로 계획이다. 경인운하 건설이 시작된 것은 1987년 7월 굴포천 유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부터이다. 홍수 재발 방지를 위해 제시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이후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의 개입으로 경인운하로 변질되었다. 1995년, 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을 민간투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1999년에 8개 건설회사가 (주)경인운하라는 이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은 경인운하로 변질시킨 건교부의 개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2003년의 감사원 감사 결과 건교부는 홍수 대책을 위한 2안(너비 80m 방수로)을 밀어붙이기 위해 매립지 경유 공사비 447억원과 하류 하천 개수비 296억원 등을 의도적으로 빠뜨려 공사비를 1200억원이나 축소 왜곡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경인운하는 출발부터 문제를 안고 태어난 사업이다.

이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논란이 일자, 건교부는 2002년 KDI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의뢰하게 된다. 하지만 KDI의 경제성 타당도 조사 분석결과는 B/C값(비용 대비 편익 비율) 0.81(1이하면 경제성 없음을 의미)이 나왔고, 그러자 건교부는 최종보고서 납품거부와 연구비 지급을 미루면서까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경제성 분석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총사업비를 2조 2,447억원을 1조 9,770억원으로 축소, 국고 지원을 2,600억원에서 5,337억원으로 과다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2003년 감사원 결과 드러나, 감사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권고하였고,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바 있다. 여기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잠시 인용해 보자.

1. 이미 경인운하 건설예정지에 입지하여 있는 교량과 같은 시설들의 높이가 선박의 마스트와 안전을 고려한 높이보다 낮아 선박이 운항하기에 부적합한 조건이며,
2.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려 한 것은 잘못된 행위로 관련자를 엄히 문책해야 하며,
3. 94년의 치수계획변경도 공사비를 조작 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발견되어 관련자를 문책하게 하는 등 경인운하 사업 계획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경인운하 사업을 이제 그만 접으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004년 네덜란드 DHV사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가 정부가 경인운하 경제성의 근거로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B/C값 1.76의 보고서이다. 여기서 또 DHV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대운하를 계기로 전국적 유명세를 탄 이 기업에 대한 임석민 교수(한신대)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자.

"그들(DHV사)은 70년대부터 한국에서 낙동강 하구언, 새만금, 인천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울산항 등 한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컨설팅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갔다. 경인운하 타당성 검토에만 20억원의 용역비를 챙겼다. 그들은 뭔가 일을 벌려야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효과를 부풀리게 되어 있다. 한국은 30년 이상 그들의 봉 노릇을 해왔다. DHV가 컨설팅한 광양항과 부산신항은 과잉투자로 가동률이 각각 시설능력의 30%, 63%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건설 중이다."

여기서 굳이 DHV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보지는 않겠다. 다만, 그들의 경제성 분석결과는 무리하게 B/C의 분자는 늘리고, 분모는 줄인 탓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마련된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공식보고서로 채택되지 못하는 등 사회적 동의를 구하지 못했으며(무려 20억원이나 들였는데도!), 이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밀분석한 결과, 경인운하 사업은 B/C값 0.61의 적자사업으로 판명났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최근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의 새 버전이 나왔으니, 그것이 바로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경인운하사업 계획의 근거로 활용된 KDI의 경제성분석 결과(B/C값 1.07)이다. 이 결과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이야기되었고, 환경정의에서도 의견서를 발표한바 있으니,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연구기관들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다. 우리는 과거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 사건을 통해 국책연구원들이 점점 각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정책의 정당화 논리 마련에 급급하게 되는 상황을 확인한 바 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을 떠난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이임사에서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2002년에는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없다고 했던 KDI 또한 정부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 개발 역할에 빠져들게 된 건 아닐까? 참 무서운 정부다. 자신들의 정책의 걸림돌이 된다면 무엇이든 개입하여 제거하는 정부. 더 무서운 건 참으로 허약한 이 나라의 시스템이다. 대

통령이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막을 수 있는 수단이란 게 별로 없다. 지하로 숨어들어가 기껏 내놓은 경제대책이 전 국토를 망치게 될 삽질공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려함에도-최근 여론조사(1/2,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가장 불만스러운 경제정책 1위(25.5%)를 차지했다-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경제성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경인운하 사업을 이야기할 때 꼭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바로 건교부가 행한 사회적 합의 파기 실상이다.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증이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조작과 왜곡 시비에 휘말리자, 건교부와 환경부, 지역주민, 환경단체는 우원식 전(前) 의원의 중재로 지역의 수해 문제를 풀기 위해 저폭 40m의 굴포천 방수로를 건설하고 경인운하 건설여부는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2005년 4월 19일 경인운하 합의문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건교부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안이니만큼 경인운하 건설 찬성은 2/3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당사자이다.
경인운하 합의문의 이행을 위해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운영되었으나, '경인운하 건설은 협의회 위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합의사항을 이행할 시기가 오자 건교부는 아예 자취를 감추고 협의회 참석 자체를 외면하였다. 투표 결과가 건교부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최종 이행을 무시하는 반칙을 정부 스스로 범한 것이다. 이처럼 건교부는 스스로 제안한 경인운하의 사회적합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불참하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당사자이며,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최종의사결정에 불참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였다. 분명한 것은 당시의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경인운하 사업은 당연히 폐기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땅히 건교부(현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사업을 홍보하는 그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경인운하의 전도사 인천지역구 이모 의원은 "경인운하의 경제성은 건설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라고 말했다. 이쯤 되면 막장이다. 요즘 아무리 막장드라마가 유행한다지만 국책사업이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 드라마는 안보면 그만이지만 국책사업의 실패는 국가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남을뿐더러 그 대가는 바로 우리들이 지기 때문이다.
2007년 3월 개통한 인천공항철도는 2007년 운영수입이 71억원에 불과해, 예상수입 1,151억원에 대한 차액 1,030억원을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용객이 예상인원의 6.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999년 착공한 울진공항은 1,320억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됐지만 10년 가까이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취항하겠다는 항공사가 한 곳도 없었다. 울진공항은 2007년 〈AFP통신〉의 '세계 10대 황당뉴스'에 선정됐다.
막장정책의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 당신과 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세대들, 그리고 이 모두가 디디고 있는 이 땅까지. 막장사업은 막장정부의 가슴 속에 묻어둬야 한다. 영영. 함

권범철 ●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 간사

민우회와 함께해서 행복했던 시간들

생기

민우회는 내게 가슴 벅찬 이름이다. 요즈음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14년간의 민우회 상근 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조직에서 사람이 들고 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나는 그리 쉽지 않은 과정을 밟고 있다. 몸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생각하면 '쉼'에 대해 편한 마음을 가져도 좋을만한데 알게 모르게 민우회내의 치열했던 긴 시간들이 생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다. 이 또한 내가 감당해야할 과정이다.

교직을 접고 10년간 전업주부로 있던 내가 민우회를 만났을 때, 그 곳은 새로운 세상이었다. 서른여섯에 민우회와 만난 내가 이제 쉰 셋, 꼬박 17년을 민우회와 함께 했다. 그것도 아주 찐-하게…. 강산이 두 번은 바뀔 세월이니 민우회를 끈으로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의 수는 얼마인가. 그 동안의 정서적 충만함, 벅찼던 일의 무게들. 17년 동안 나의 직함은 회원에서부터 간사, 교육부장, 사무국장, 상담실장, 상담소장, 대표까지 아주 다양했다. 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일'들의 역할과 인간관계들에 얽힌 과정들이 휘-익 머리를 스쳐갈 만도 하지 않은가. 돌이켜보면 기억도 아스라한 시간들이지만 내겐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의지와 열정의 시간들이었다. 민우회를 통해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 세상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눈으로 보고 함께 할 수 있었던 날들, 스스로도 대견할 만큼 다른 삶을 위해 많은 것을 채우려고 올인 했던 나날들. 운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우회의 집단적인 힘은 놀라운 성과를 안겨주었고, 그 속에서 믿음을 키워낼 수 있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힘겨워 도망가고 싶은 순간순간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늘 "바쁘다, 바빠"를

외치고 살았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 내가 필요한 일이 있다는 뿌듯함,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감사함으로 그 긴 시간을 버텨올 수 있었던 게다.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통과 현장에서의 뿌듯했던 기억이나 이슈별 주요 정부 정책의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민우회의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우회가 아니었다면 내가 '가족' 담론, 성(Sexuality), 노동의 문제, 몸에 대한 권리, 차별, 폭력, 인권 등 수많은 주제들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 미디어나 환경, 생협 운동의 가치를 어깨너머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 나는 민우회로부터 일상의 주제들에 대해 여성주의적 감수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선물 받았다. 여성주의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해결이 더딘 영역이라는 안타까운 덤도 얻었다. 그래서 여성주의자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검열은 아직도 불편하며, 이로써 삶이 좀 더 고달파진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쭈-욱 지속될 게 뻔하지만 기꺼이 애써 볼 요량이다.

잊을 수 없는 기억중의 하나! 스무살 민우회를 잘 맞이하고 정리해내며 알려내는 일, 운동 공간 마련을 위한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일이다. 열혈 민우회원들과 민우회를 아끼는 분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어 가능했던 일로 지금 생각해도 고개가 숙여지는 고마운 마음이다.

민우회 울타리 안에서 한국사회 '여성'으로 살아가기의 고단함을 풀어낼 수 있었고,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키워갈 수 있었으며, 관계맺음을 통한 채움의 과정은 소통으로 얻을 수 있음도 깨달았다. 그 속에서 다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었음과 동시에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된 행복한 경험도 빼놓을 수 없다.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보듬어내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의지와 열정은 다양한 그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음도 깨달았다. 그것은 민우회 안에서 얻은 큰 결실이다. 나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안다. 잠시의 '쉼'이 필요한 시간이다. 함

생기 ● 어디서든 항상 웃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자주 놀러와요~
항상 기다릴게요♪~

연극 '발자국 안에서'를 보고

발자국 안에서 맴돌다

타기

「**발자국 안에서**」 극작 : 고연옥, 연출 : 김광보
공연일정 : 2009년 1월 3일~2월 1일(극단 청우)
공연장소 : 대학로극장(혜화동)
참고도서 : 「철학카페에서 문학읽기」 김용규 저,
「인류 최초의 키스」고연옥 희곡집

실없는 질문 하나. '함께가는여성' 원고의 시한은 왜 이다지도 빨리 돌아오는 것일까? 난 지금도 시한을 넘겨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발등이 녹을 지경에 이르러 '핫, 뜨거'를 외친다. 마치 발등은 내 것이 아닌 것만 같다. 연극 '발자국 안에서'의 주인공 화가처럼…….

화가 : *정말 그리고 싶을 때는 손등에다 그렸죠. 아내에게 들킨 다음에는 발등에다 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가끔 지워져 있을 때도 있지만요.*

손님4 : *작업실은 고사하고 손등, 발등도 갖지 못하고 산단 말이요?*

발등이 없는 화가라니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증이 일 것이다. 여기, '단 하나 뿐인 유혹의 공간'인 '쌀집'에서 화가를 둘러싼 관계,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희곡이 있다. 범상치 않은 대사로 채워진 이 작품을 연출가는 단촐한 무대장치와 의상만으로도 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다는데. 난 솔직히 연극이 끝났을 땐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아직도 머리에서 맴돌아 이 글을 쓰고 있으니 그건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나 보다. 그렇다고 이 글을 읽는 이들이 당장 볼 수 없는 연극을 소개해도 될지 싶었지만, 대학로에는 수많은 소극장 사이를 비집고 뒤통수를 '후려치는' 작품들이 많다고 꼭 말하고 싶다!

일상적이지 않은 소재가 얼마나 일상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찾아 '발자국 안에서' 따라 가본다. 작업실을 막 얻은 화가 주변으로 동네 주민들이 찾아든다. 이들은 음습한 얼굴로 '여긴 쌀집이었으니 쌀을 팔라'고 종용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논리로 용도 변경한 공간을 되돌려 놓으려 한다. 이때 연출은 기둥과 벽 하나로 된 무대장치를 이리 저리 여러 차례 옮길 뿐 '종용과 거절'의 장면을 반복한다. 아, 화가가 얼마나 지쳐갈 것인가를 알게 한 참으로 기발한 연출이다. 문제는 극

전체에서 그 주민들이 그리 이상해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버티고 서서 '내 작업실'에서 나가라고 윽박지르는 화가가 비일상처럼 느껴질 뿐. 그러나 모두 회색 옷을 입고 같은 리듬의 종종걸음을 걷는 주민들과 자기 옷을 입고 자기 걸음을 걷는 화가와의 대조는 무척이나 상징적이다. 자기 소유임이 분명한 작업실조차 외부에 잠식당하고, 곧 그의 생명이 위협해지는 지경에 이르는데…….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 착각한 화가. 극 내용은 섬뜩한데 기발한 연극적 장치들(반복하는 장면, 마치 공간이 살아 있기라도 하듯 벽에 숨은 마을 주민들 모습 등)에 배우들의 천연덕스러움까지 더해져 오히려 희극적이다. 또한 '삶(生)'을 상징하는 '쌀'집이란 공간에서 '편리와 이기'에 눌려 변해가는 화가의 상황은 이 연극이 말하고자 하는 역설이 아닐는지. 주민들 '패거리'는 우르르 몰려다니며 '인생 뭐 있어', '사는 게 그렇지 뭐' '고상한 척 해봤자 별 거 있겠어?' 하고 냉소적으로 말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와 다를 게 없다는 씁쓸한 뒷맛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는 늘 익숙한 공간인 사무실과 집에서 물건들이 빼곡히 채워지면서 답답하여 탈출하고픈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혹은 주객이 전도하여 물건이 상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심지어 그 상황을 꾹 참고 있는 자기 모습에 놀랄 때도 많다. 그것은 비단 사적 공간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다.

형사 : *지난 석 달 동안 이 곳을 드나들었지만, 실마리 하나 발견하지 못했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놈의 발자국 안에서 맴돌고 있는 건 아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밟아 없애 버린 무겁고 거대한 발자국…… 모든 것이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도시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작가는 형사의 입을 빌어 현미경으로 화가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획일적인 물건처럼 살아가고 오히려 도시는 우리의 "혈관과 맥박을 이식한" 괴물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아닐까 묻고 있는 것만 같다. 하이데거는 실존이란 다른 사람들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세상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존재 가능성'을 기획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발자국 안에서' 화가는 '세상사람'이 아니라 '존재 가능성'을 향해 발버둥친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 존재'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오늘도 난 여전히 새하얀 눈길에 난 무수한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밟고 있다. 맴맴맴맴…… 암

타기 ● 요새 뮤지컬보다 연극 관람이 더욱 즐거워요.
이 작품이 궁금한 분들, 추후 상연 소식은 club.cyworld.com/ichungwoo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

오디

요즘 대학생들은 만능 엔터테이너이다. 영어는 기본, 제3외국어까지 구사하는 학생도 많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수어개, 외국 경험, 인턴 경험까지 무수하다. 예전 같으면 대기업에서 어서 옵쇼 할 만한 이력일 텐데 요즘에는 이 경력을 가지고도 '이.태.백' 이다.
대학시절 이정도의 경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빠듯한 대학생활을 보내야 할 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처럼 잔디밭에 모여앉아 막걸리를 마시는 대학가의 낭만은 사라진지 오래다. 대학교 입학식 날에는 각종 어학원과 유학센터에서 전단지를 뿌리러 온 사람들이 한가득이다. 동아리의 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영삼성', '영현대' 등 기업-대학생 연계 동아리에서 근사한 회원모집 광고를 하는 터에 대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동아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다. 꼭 기업 연계 동아리가 아니어도, 요즘 대학생들은 동아리를 가입하기 전에 이 동아리가 나의 이력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다. 그래서 부자 동아리, 주식 투자 동아리는 면접을 보고 회원을 뽑을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고, 내가 활동했던 가톨릭학생회와 노래패에서는 밥을 사주겠다고 해도 도서관을 가야한다며 퇴짜를 맞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나온 후, 나는 여성운동, 환경운동처럼 '20대운동' 을 만들어보고자 사람들을 모아본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20대가 힘을 합쳐 현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보다 홀로 토익책을 파고 다른 20대를 이기는 게 더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20대들이 더 많았다. 그러다가 결국 취업이 안된다해도, 그들은 '사회의 문제' 라기 보다 '내 능력 부족' 이라고 치부해버렸다. 등록금 비싼 것도 내 능력 부족, 내 학벌로 인한 사회적 무시도 내 능력부족인 것이다. 또한 나의 동기들은 KTX 여승무원의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 업보야' 라며 너무 쉽게 접어버렸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먹기 위해 사는 것과 살기 위해 먹는 것의 차이라고 했던가. 요즘 대학생들은 다양한 기술적 능력을 가진 것에 비해 감수성과 사는 이유는 동물처럼 단순하다. 지금 친구고 뭐고 다 버려도 취업만 잘되면, 돈만 많이 벌면 행복이 올 것이라 생각하는가보다.

대학생끼리의 경쟁은 고3의 경쟁보다 혹독하다. 취업시장에서는 성적뿐만 아니라 외모, 면접태도, 호감도 등 평가받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내가 다닌 대학은 여대였음에도 여성학 전공이 결국 문을 닫았는데, 여대생들이 회사에서의 유리천장의 문제 등을 강의하는 여성학 수업

을 듣고 좋아할 리가 없다. 여대생들은 그런 것을 알면 알수록 '유리천장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여자가 되어야지' '남성보다 더 독한 여성이 되어야지' 하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남성문화를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여대생 병영체험 캠프' 가 매 학기마다 열렸다. 특히 취업 문턱에 접어든 여대생들은 "마초적이고 룸살롱 가도 좋으니 나 좀 뽑아줍쇼" 라 외친다. 기업의 복지 따위는 먼 나라 이야기이다. 돈만 주면, 취업만 시켜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요즘 대학생들의 처절한 소망이다.
사실 나는 이런 친구들을 안타깝게,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한심하고 답답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대학에서 친구들과 있다 보면 종종 '너네는 왜 사는 거니?' 하는 궁금증이 일 때가 있다. 그렇지만 친구들은 역으로 '왜 사는지' 를 고민하는 나를 더 한심하게 바라보았다. 돈 벌 걱정은 온데간데없고, 경력에 도움도 안 될 철학 책이나 읽는 내가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될 리 없었다.

신기한 것은, 4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었던 2008년 여름을 교육감 선거운동과 촛불투쟁으로 보낸 내가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취업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요즘 소위 말하는 〈취업7종세트〉-명문대 졸업장, 외국어 성적, 해외 경험, 기업체 인턴십, 각종 자격증, 봉사활동,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력과 직업- 에서 단 하나도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다. 친구들과 후배들이 이력서를 어떻게 썼냐는 질문에 나는 가톨릭학생회, 노래패, 농활, 참여연대와 민우회 활동을 썼다고 했다. 친구들은 내가 그 활동들을 이력으로 해서 회사에 입사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지우지 못했고, 심지어 억울해하는 동기도 있었다.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4주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회사의 인사팀이었어도 "무조건 회사에 나를 맞추겠으니 뽑아줍쇼"하고 있는 대학생들보다 나처럼 비주류였던 가톨릭학생회와 노래패에서 뼈를 묻었던 학생이 더 책임감이나 성실도 면에서 믿음이 갈 것 같다는, 약간의 자만심이 들기도 하다.
졸업과 동시에 덜컥, 회사에 붙어버린 지금은 나의 지난 대학생활에 더욱더 확신이 든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스펙' 을 만들러 다닌 그 시간에, 벗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삶에 대해 고민하고,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대학생활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나에 대한 자신감과 삶에 대한 의식이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다.

인문대학을 취업준비코스로 전락시켜버린 학내 관계자들에게 야유와 조소를 날리고 싶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20대들이 엉뚱한 곳에 젊은 혈기를 바쳐가며 삶에 대한 좌절감만 얻고 야위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후배들이 나를 보면서, 부디 취업을 위한 대학생활을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하고 싶은 것 실컷 하고, 놀고 싶은 데로 실컷 놀고, 책도 많이 읽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암

오디 ● 맑은 웃음, 분위기 있는 목소리, 똘망똘망 호기심이 가득한 그녀

경제위기와 판도라의 상자

안인숙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 구속됐다. 경제대통령으로 한국의 경제정책의 전망과 나아갈 길을 밝히던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전문대 졸업의 백수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를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렀던 大한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가 유포한 허위사실-정부가 2008년말 7대 은행에 달러매수자제요청공문을 넣었다는-이 사실은 사실이었다는 후문이 있던데(ㅠ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한 명의 블로거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우리경제가 그로 인해 얼어붙었던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大한민국의 경제에 찬바람이 불게 된 진정한 원인에 대해 누군가는 자문하고 있는지….

토목공사를 통해 경제를 살리려는 또 한 명의 경제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었던 우리들로서는, 수출산업중심의 고환율정책도 걱정스러웠고, 미국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도 걱정스러웠다. 펀드열풍 속에서 이제라도 펀드에 들어야 하나 고민하고, 마지막 펀드 열차에 몸을 실으면서도, 과연 금융상품은 땀흘리지 않고도 많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지도 의문스러웠다. 부동산 이상과열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에 많은 서민들이 은행 빚을 얻어 집을 구입하면서도 불안하였다. 걱정에 걱정이 꼬리를 물고 불안하였으나, 한국경제의 파이가 늘어나면 '우리'의 몫도 늘어날 것이라는 그나마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안타깝게도 경제대통령의 전망대로 서브프라임사태의 여파가 크게 번졌고, 주가도 하락하고, 이어 실물경제도 위협을 받고 있다. 금융파생상품이라는 자본주의의 놀라운 발명품은, 아니 그런 발명품을 가능케 하는 경제시스템은 한 때, 무궁무진한 자본의 증식을 가져와, 모두의 자산가치를 키우는 방향으로만 진행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분수를 모르는 탐욕의 시스템은 선량한 우리들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우리들 앞에 이제 실업과 파산의 공포만이 남아있다.

별다른 욕심없이 선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펀드광풍 속에서도 펀드가 뭔지도 몰랐던–은 비웃음과 걱정을 동시에 받았다. 몇 달후, 원금이 절반으로 꺽인 몰빵펀드로 울상 짓는 또 다른 우리들을 보며, 자본주의의 탐욕의 시스템, 소외의 시스템에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너나할 것 없이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는 사회,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내 손에 쥐게 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계산법이 통용되는 사회,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을 깨치라고 하는 사회는 '술 권하는 사회'의 다른 이름이 아니던가.

실물경제(흙)와 무관하게 가치를 창조하는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갈갈이 찢어놓는 거짓경제에 더 이상은 의존해서는 안 된다. 경제economy의 어원은 가정oikos과 규범nomos이다. 가족의 살림살이에 관한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경제는 가족의 살림살이다. 가족이란 1인이든 10인이든 살림 협동체의 최소단위가 아닌가. 그 가족이 모여 지역이 되고 세계가 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우리 사회를 떠돈다는 200조원과 그것이 만들어낼 금융의 마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흙(실물경제)에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가치로운 것을 창조하며, 그 가치는 사용가치에 있다는 생각이 복권되어야 한다.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고, 자연을 대상으로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 소유물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분수에 맞춰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 활동의 목표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맞춰지고, 공동으로 관리ㆍ운영되어, 공동의 자산으로 남는 살림살이가 도처에 생겨나야 한다. 협동의 경제가 우리에게 희망이다.

최근 경제위기로 30여 년 동안 민우회생협이 만들어온 친환경농업생산자와 소비자의 아름다운 경제의 토대가 흔들릴까 두렵다. 협동조합은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더욱 확산되어야 할 사회적 소명이 있다. 조합원의 건강을 생각하며 생산하고, 생산자의 삶을 생각하며 소비하는 협동의 경제는,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개인의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인간적인 자본주의를, 협동적 경제의 확대를 통해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다.

황혼녘에 날아오른 미네르바는 세상을 맘껏 노래하지 못하고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의 입을 빌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탐욕의 경제 몰락을 기록할 것인가. 또 다른 미네르바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의 기록에 판도라의 상자가 될 '협동의 경제'를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이 되자. 함

안인숙 ● 고양여성민우회생협 상무이사
민우회에서 평생의 친구를 만나게 된 행운아

광주여성민우회

그녀들의 역사이야기

2007년 9월초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광주여성민우회 〈여성의 눈으로 보는 역사 그리고 세상-여성역사해설사 양성과정〉은 그들만의 시각과 감정으로 씌여진 역사를 그녀들의 시각으로 비틀어보고 다시 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1기에 모집 인원은 40여명으로 3일간의 풀타임강의로 이루어졌다. 모두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 눈빛을 멍석삼아 다시 쓴 '그녀들의 역사' 는 작년 2기 35명을 배출해냈고 그 중 몇 명의 그녀들은 광주여성민우회 여성역사해설사 모람활동으로 훌륭히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1기 프로그램을 살짝 들여다보자.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 그리고 세상' 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역사의 문을 활짝 열었다. 총 8강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성의 눈으로 역사를 본다는 것과 역사 속 여성 인물을 이해하는 것, 삭제된 여성들의 경험을 구술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습 및 토론을 했다. 그 중에 광주국립 박물관과 서울에 있는 여성사 전시관을 다녀온 것은 이론에 그칠 뻔 한 지식을 현장으로 연결시켜 여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시각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해설의 본보기를 볼 수 있어 우리들의 기억 속에 커다란 성과로 남았다.

작년에 했던 여성 역사 해설사 2기는 한결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성 평등한 역사로 보는 그녀들의 삶은 6월에 시작해 9월에 끝이 났다. 남성중심 지배자 즉 강자중심 기록중심의 역사를 여성의 눈으로 그것도 성 평등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특히 고대사회의 신라여왕의 리더십은 우리가 기존의 알고 있었던 성골간 근친혼이라는 골품제도에 의한 어쩔 수 없었던 선택만은 아니었음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덕만공주 개인의 뛰어난 자질이 아니고서는 고대사회에 여성의 리더십이 발휘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고려시대 여성이 성리학을 받아들인 조선의 여성들보다 훨씬 더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놀랐다. 특히 '염경애'의 삶을 중심으로 들었던 강의가 기억에 남았다. 신여성 강의에서는 나혜석의 삶을 조명함으로서 그녀가 가부장적인 남성사회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거부당하고 그녀의 진보적인 삶의 경험이 갈기갈기 찢겨나갔는지를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었다. 시대를 잘못만나 거부당해야 했던 행려병자로서의 그녀의 죽음 앞에선 모두가 숙연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 있었던 답사는 여성역사해설사회의 백미였다.

이 시대의 아름다운 사람하나 고정희 시인의 생가와 김남주 생가를 거쳐 다산초당을 다녀오는 코스였다. 고정희 시인과 김남주 시인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겨지는 듯 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영원한 페미니스트 시인 고정희 시인을 알게 된 것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역량을 하루빨리 키워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시인1호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낙점되었다.

제2기에서 성과는 전남대 정경운 교수님과 함께 진행했던 기록되지 않고 삭제된 여성들의 경험을 복원해보는 실습이었다. 모두 네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졌는데 각각 여성의 친구사(史), 생리대의 역사, 이름에 깃든 여성들의 삶, 시대별 여성의 문화라는 4가지 주제였다. 우리는 직접 할머니를 찾아가서 녹취하여 기록물로 남겨 전시까지 했다. 전시물을 보는 우리 모두의 가슴엔 뿌듯함이 자리 잡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성역사해설사의 깃발이 2009년 소띠 해에는 더욱 더 힘차게 휘날릴 것이다. 우리 모람은 여성역사해설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올 한해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는 밖으로 나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여성들의 삶을 찾아 모아 보기로 했다. 좁게는 우리지역의 여성부터 넓게는 강원도 서울과 전국에 있는 인물을 선정해 차근차근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5·18도 여성의 눈으로 해설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에서 효부상을 탔던 여성을 인터뷰하여 그녀들의 진짜 삶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우리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다. 효부상을 타기위해 그녀가 겪었을 지난한 고생의 뒤안길을 살짝 엿봄으로서 이시대의 진정한 효부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워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 일 것 같아서이다. 성 평등한 삶을 제대로 사는 페미니스트 남성들에게 주는 사윗상을 제정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우리가 접했던 여성의 역사유적지는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 초라함을 우리가 어루만져줘야 땅속의 그녀들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암

문춘희 ● 여성역사해설사모람지기

민우회 OHP를 (Open House Party) 다녀와서

12월 13일 토요일 민우회 OHP(Open House Party)는 나에게 어느 단체의 회원이 되어 초청받는 최초의 경험이었다. 주변에 무관심한 나에게 어느 단체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사실 회원이 되는 것 보다 이렇게 나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의 결과는 아니다. 나의 친한 친구가 민우회 안에 있고 그 전부터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탓에 민우회는 처음부터 나에게 편안한 쉼터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나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이 샘솟은 것이다. 그래서 2008년 초부터 나와 민우회의 관계는 시작되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던지라 작은 떨림과 기대감이 나를 감싸 안았다.

평온한 민우회의 새 보금자리 나루, 나를 알아봐 주며 인사해주는 활동가들, '드릴러'가 그저 의미 없는 이름에 그치지 않고 내 안에서 의미가 되는 순간, 나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이름조차 다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꼬깜에게 부지런히 사람 확인을 하며 나의 죄의식을 잠재웠다.

나루의 지하 극장에 마련된 뷔페는 너무나 맛있었다. 예상외의 큰 만족감이었다. 두 접시를 비우고 나서야 나의 허기는 잠잠해 졌다. 그곳에는 어림잡아 60여명의 사람들이 민우회의 앞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 모여 앉아있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처음 봤거나, 처음 봤다고 느끼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색함과 긴장감을 느꼈다.

서로를 소개하며 OHP는 시작되었다. 이름, 소속, 나이, 사는 곳, 학벌 등 건조한 소개가 익숙한 또는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나의 기분, 취향, 고민들은 오히려 거짓처럼 느껴진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 책, 영화, 만화, 꿈은 사랑에 빠졌을 때나 나눌 수 있는 은밀한 것, 환상적인 것, 무의식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이웃의 토토로 같은 만화의 세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의 외피만을 고민하고 나누도록 강요받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나의 의식이 번뇌하는 사이 스윙댄스와 밸리 댄스의 공연이 있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수천 마디의 말이 아니라, 이런 작은 몸부림일 것이다.

'다라이 속 먼지 하나'가 부른 'Corinne Bailey Rae'의 'Like A Star'는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게 했다. 흩어져 가는 사랑이 내안에 갇혀 화석이 되면 그것은 집착이 되고 죄의식과 후회만을 남긴다. 내 손위의 흘러내리는 오일 같이 내안에 아름답게 기억될 때, 또 어디에선가 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거겠지….
나는 시간이 나서 '두근두근'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 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맥주한잔, 나는 끝까지 남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집으로 향했다.

행사를 연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일이다. 그 일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다. 민우회 활동가들의 무게가 나는 남일 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잘 준비된 잔치 상은 편한 마음만으로 즐길 수가 없다. 공감하는 것과, 소통하는 것, 믿고 의지하고, 동조하고, 격려하는 것, 모두 민우회 OHP에서 느낀 것들이다. 이제서야 너와 나는 서로 알아갈 준비가 되었다. 암

드릴러 ●
2009년에는 일본어를 배우고, 밴드를 멋지게 하고 싶다. 그리고 과감하게 나의 인생을 시작 할 것이다.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송년의 밤
- 일시 : 2008년 12월 12일(금) 오후 6시~9시
- 장소 : 백석동 블루밍카페

꿈워크숍 – 꿈해석을 통해 자신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일시 : 2008년 12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5회)
- 장소 : 고양여성민우회 교육장

고양여성민우회 정기총회
- 일시 : 2009년 1월 21일
- 장소 : 미정

민우열린강좌
부모들이 알아야 하는 10대들의 성
- 일시 : 2009년 2월 11일, 18일, 25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사과나무 치과 교육장

광주여성민우회

제9차 정기총회
- 일시 : 2월 7일(토) 오후 2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2층 회의실

제5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 일시 : 2월 9일(월)~2월 20일(금), 09:30~17:30
- 장소 : 전남대학교 법과대 301B 강의실

군포여성민우회

생협마을모임
- 일시 : 2월 중
- 장소 : 8단지, 3단지, 당동, 의왕

부모성교육
- 일시 : 2009년 2월 10일 오후2시
-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모집
- 일시 : 2009년 3월 9일~4월 22일 (총64시간)
-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

민우데이
재능을 나눠요~ 회원이 강사가 되어 체험교실을 진행
- 일시 : 2009년 3월 24일(화) 오전10시
-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여성 영화보기 1탄
매월 셋째주 월요일,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성과 관련된 영화를 '달맞이'가 준비합니다.
- 함께 볼 영화 : 어웨이 프롬 허
- 일시 : 2009년 2월 16일(월) 오전10시
- 장소 : 민우회 교육장

2009년도 동북여성민우회 생협 대의원 총회
2008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제3기 임원선출
- 일시 : 2009년 2월 18일 (수), 10시
- 장소 : 도봉어린이정보문화센터 3층 강당

도봉구 친환경 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 교육
친환경급식조례 제정의 의미와 경험, 현장에서 본 친환경급식조례의 필요성, 도봉네트워크 이렇게 하자!
- 일시 : 2009년 2월 24일 (화) 오후 2시
- 장소 : 도봉구민회관

실뜨기로 작은 사랑나눔을 함께 해요~
일교차가 심한 아프리카 신생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모자뜨기를 함께 합니다. 뜨개모임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기부도 하고 집에 있는 면실도 함께 모아주세요.
- 일시 : 노원모임-2월11일 (수) 오전 10시 도봉모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소 : 노원구 현대5차 아파트 사랑방 (노원우체국 앞)

서울남서여성민우회

민우어린이학교 '우리지역 백제문화 탐방'
- 일시 : 2009년 2월 25일(수) 오전 9시~오후 4시
- 장소 : 강서구, 양천구

녹색가게 – 교복교환행사
- 일시 : 2009.2.19~20
- 장소 : 양천구청 강당

원주여성민우회

제10차 원주여성민우회 정기총회

2008년 사업평가, 결산안 승인, 2009사업 계획, 예산안 승인, 임원선출

- 일시 : 2009년1월30일(금) 저녁7시
- 장소 : 중앙동 밝음신협 2층 교육실

인천여성민우회

제9차 정기총회

- 일시 : 2월 13일(금) 오후7시
- 장소 : 본회 교육장

진주여성민우회

상담원재교육

- 일시 : 2월중순
- 장소 : 미정

춘천여성민우회

제10차 춘천여성민우회 정기총회

- 일시 : 2009년1월29일(목) 오후6시
- 장소 : 교동주민센터 2층

시민인문학 강좌–"인문학, 시민을 품다"

- 일시 : 2009년2월~6월(매주 목요일 오후7시30분)
- 장소 : 광장서적 팔호광장점 북카페

활동가 여행프로그램–짧은여행 긴호흡–"소풍"

- 일시 : 2009년 2월
- 장소 : 제주도

시민공간 「나루」로의 이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회원분들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슝슝슝– 신난다~~!!
따스한 마음이 담긴
선물물물이다!!

이쁜 화분들이 잔뜩이예요. 우리가 절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길 희망해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잘 자라나는 '꿈화분이'가 될꺼예요~~

각종 주방용품과 장식품들이
민우회 본부를 채워주었습니다.

이전 축하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김정애, 김미혜, 남부여성민우회, 남서여성민우회, 남서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남윤인순, 달리, 동북여성민우회, 동북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문채수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원(다사,보약,깔갈,장소주,해바,허브, 난나, 나무, 두껍),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양해경, 엄현주, 이박혜경, 인천여성민우회, 임재련, 장애여성공감, 진주여성민우회, 최명숙, 춘천여성민우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보내주신 선물과 마음 잘 담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회원이 민우회의 주인입니다.

[함께가는 여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함께가는 여성]을 읽고 느낀 점이나, 민우회에 바라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독자마당'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민우회가 마련한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자의견은 민우회 이메일 minw●●@w●menlink.●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웃어라 민우회! 민우회원 생활백서

사알~짝 회비인상하기!

❶ 민우회에 대한 나의 애정을 표현하고 싶다.
❷ 민우회로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낸다.
❸ 천원이든 만원이든 사알~짝 회비를 올린다.

회비 인상하신 고마운 회원분들!!!

김유진 김은실 민지숙 박정옥 변혜원 전윤정 정미숙 정은경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강진석 고옥주 곽선숙 권정민 김미현 김미화 김양매 김영태 김윤미 김윤희 김정희 민선애 박명숙 박명은 박상영 박영옥 배수민 백지인 서 민 석영인 손미남 신수자 신유희 안성심 염혁상 유현주 이경순 이민규 이수연 이용미 이유미 이은하 이지영 이현숙 이혜경 이화영 임은주 임지애 장서연 장소영 전미선 전성원 전영주 정슬아 정은주 조수현 조필금 최성이 최영순 최진화

(2008년 12월~2009년 2월)

여성주의학교
'간다'

한국여성민우회 엮음, 지성사 출판사

매해 진행되는 민우회의 여성주의교육이
이제는 책으로!

강의의 생생한 목소리와 현장감이 그대로!

여성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문화, 섹슈얼리티, 과학, 정치, 가족,
노동, 평화에 대한 이야기

김은실 |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
한채윤 | 여성주의 인식론, 섹슈얼리티
김영옥 | 근대 / 탈근대와 페미니즘
임지현 | 이념의 속살 – 민족주의와 여성
이대훈 정희진 | 여성주의로 보는 평화, 평화로 보는 여성주의
조영미 | 생명공학 기술과 여성의 몸
박혜경 | 가족을 넘어선 페미니즘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미래
김경희 | 세계화와 노동, 그리고 여성정책
윤정숙 | '여성운동'을 넘어선 여성운동

지금
전국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한국여성민우회 | 02.737.5763 | www.womenlink.or.kr

한국여성민우회의 **사무실 건립**에 **출자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2007년 〈길을 여는 사람들〉 684분이 1억8천여만원,
2008년 '시민공간 나루' 건립을 위한 공감여행 후원 콘서트에
5,700여분이 1억여원의 기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축비가 급증하면서
예상외의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출자금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출자는 안정적으로 여성운동을 벌이는데
값있게 쓰여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 **1구좌 1,000,000원 :** 연리 4% (복리, 이자소득세 포함)
- **1구좌에 개인 및 2인 이상 모임 가능**
- **투자 1년 후 이자와 함께 환불, 1년 단위 재계약**
- **모집기간 :** 2008년 11월 10일~2009년 10월 31일
- **문의 :** 02-737-5763 (담당자 : 주가이)

※ '나루 이전을 위해 공사비 5억6천6백6십만원, 설비 및 인테리어 4천만원, 기타비용(이사비용 등)으로 2천7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중 현재 2억6천5백만원을 공사비로 지급한 상황입니다.

회원문의 02-737-5763 팩스 02-736-5766

고용평등상담 02-706-5050 팩스 02-736-5766

미디어운동본부 02-734-1046 팩스 02-739-1047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팩스 02-736-5766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02-581-1675 팩스 02-3679-2202

서울남서여성민우회 02-2643-1253 팩스 02-2643-1252 매장 02-2643-6060

서울동북여성민우회 02-3492-7141 팩스 02-3493-9221 생협 02-3492-7140 생협매장 02-3492-9999

고양여성민우회 031-907-1003 팩스 031-907-5009 매장 031-919-1774 상담 031-919-1366

광주여성민우회 062-529-0383 팩스 062-529-0384 상담 062-521-1366 성폭력쉼터 062-462-1366

군포여성민우회 031-396-0201 팩스 031-394-2343 매장 031-396-0261 상담 031-396-0236

원주여성민우회 033-732-4116 팩스 033-744-0113

인천여성민우회 032-525-2219 팩스 032-525-2256

진주여성민우회 055-743-0410 팩스 055-746-9771 매장 055-746-7077 상담 055-746-7462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팩스 033-243-9746 상담(노동) 033-254-2155

한국여성민우회 Korean WomenLink

(121-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Tel 02-737-5763 Fax 02-736-5766

E-mail minwo●●@w●menlink.●r.kr 홈페이지 www.w●menlink.●r.kr